

SAP CO 모듈 기준정보

VER.01

CREATE BY.

C.S JANG

soma7321@hanmail.net

DATE

2020-07-24

CONTENTS

1. 기준 정보	3
1-1. SAP 개요 및 구성 요소.....	3
1-2. CO Object	6
1-3. 원가요소-1차 원가요소(Primary Cost Element)	9
1-4. 원가요소-2차원가요소(Secondary Cost Element)	12
1-5. SAP 조직구조.....	15
1-6. 배부(Allocation)와 정산(Settlement)	18
1-7. 코스트센터(Cost Center)	22
1-8. 액티비티유형(Activity Tpye)	27
1-9. 통계주요지표(SKF, Statistical Key Figures).....	34
1-10. 내부오더(Internal Order)	37
1-11. 수익성세그먼트(Profitability Segment)	41
2. 물류 모듈 기준 정보	44
2-1. PP(생산) 모듈 기준정보.....	44
2-2. MM(자재) 모듈 기준정보	53
2-3. SD(판매) 모듈 기준정보	59

1. 기준 정보

1-1. SAP 개요 및 구성 요소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SAP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팀은 회계팀이었는데 왜 이런 팀에 보냈을까?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SAP가 한창 Boom을 일으키던 시기였는데 저만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입사하자마자 SAP를 접하게 되었고, SAP PI를 거치고 프로그램 개발의 '개'자도 몰랐던 문과 출신인 제가 ABAP개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SAP 중에서 제가 맡은 것은 CO 모듈입니다. 5 가지 모듈 중 왜 하필 CO 모듈을 맡았을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냥 SAP의 회계 파트 중 하나인 CO를 하라고 해서 막연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CO를 배울 때는 SAP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어려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다. 이 SAP 트랜잭션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결론을 주는지 알아내는 것 역시 어려웠습다.

특히, CO란 모듈은 그 자체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모듈인 MM, PP, SD 심지어 FI까지도 알아야 CO를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순서로 CO 모듈을 배워 나가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건 뭐랄까. 회계 책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CO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관리/원가 회계 책에 나온 표준원가 계산의 원리가 그대로 시스템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로는 이론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놈의 CO는 이론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CO 모듈의 간단한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겠습니다.

1. SAP에서 CO 모듈의 역할은?

SAP CO(Controlling) 모듈은 SAP의 5 개 코어 모듈(MM, PP, SD, FI, CO) 중 하나이다. 이 중 회계 파트가 2 개인데 FI(Finance)는 재무회계, CO(Controlling)은 관리/원가 회계에 속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공시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회계이며,

관리/원가회계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보고 회계이다.

2. 내부 관리 목적은 무엇이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은 내가 생각하기엔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품별 원가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SAP CO 모듈의 최종 목적은 제품별 원가 계산을 통한 제품별 수익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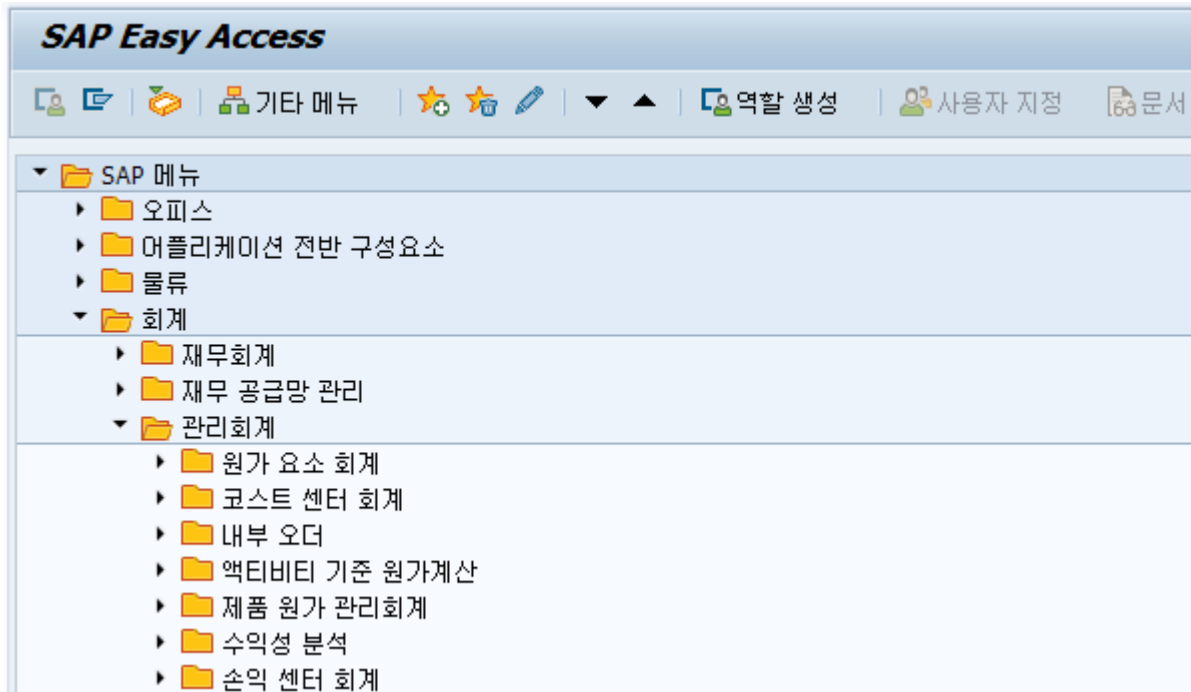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제품별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CO 모듈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구성요소마다 여러가지 트랜잭션을 수 행합니다. SAP의 모든 화면에서 실행하는 것을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하며 각 트랜잭션은 빠르게 그 트랜잭션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T-Code를 가지고 있습니다.

3. SAP CO 모듈의 주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SAP CO 모듈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원가요소 회계(Cost Element), 코스트센터 회계(Cost Center Accounting), 내부오더(Internal Order), 제품원가관리회계(Product Cost Controlling), 수익성분석(Profitability Analysis)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액티비티기준 원가계산, 손익센터 회계가 있으나, 저는 액티비티기준 원가계산은 사용해보지 않았고, 손익센터 회계는 SAP ECC 6.0 의 New G/L 이후 FI와 통합되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리회계(CO)의 구성요소 확인]

간단하게 SAP CO의 목적과 구성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CO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CO Object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2. CO Object

지난 챕터에서 관리회계의 목적과 SAP CO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CO 구성요소는 정식 교재에는 조금 다르게 분류하는데, 저는 그냥 SAP 메뉴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O PI 업무를 하고, 현업 담당자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CO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설명드릴 CO Object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더 쉽게 CO를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1. CO Object란?

CO Object를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면 'CO 대상'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석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단어 그대로 '대상'이라기 보다는 저는 '그릇', '집합체' 등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무언가 공통점을 가진 것을 한데 모으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일을 관리할 때 서로 관련이 있는 파일끼리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폴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에서 관리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수익과 비용을 담아 두는, 모아 두는 그릇이 필요한데 이것을 CO Object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관련 비용을 한데 모아두면 관리가 편하겠죠. 이런 체육대회 관련 비용을 모아두는 CO Object가 내부오더(Internal Order)입니다.

각 팀별로 발생한 비용(급여, 복리후생비, 교통비, 교육비, 감가상각비 등)도 팀별로 모아두면 편한데, 이를 모아두는 CO Object가 코스트센터(Cost Center)입니다.

이렇듯 CO Object는 수익과 비용을 용도에 맞게 한데 모아두는 그릇, 집합체를 말합니다.

1. CO Object란? 특정 목적에 맞게 비용을 집계하는 단위.

2. CO Object의 종류



[CO Object의 개념 및 종류]

2. CO Object의 종류

CO Object 종류로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세그먼트(Profitability Segment) 등이 있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코스트센터는 회사 조직 구조에 맞게 각 팀을 하나의 코스트센터로 생성하여 팀별 비용을 집계하는데 사용합니다.

② 내부오더 역시 비용을 집계하는 CO Object인데, 이벤트성 경비를 집계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나 창립기념일 행사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집계하기 위해 내부오더를 사용합니다.

③ 수익성 세그먼트는 수익을 집계하기 위한 CO Object로 특성(Characteristics), 특성치(Characteristics value), 값필드(Value Field)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설명하겠으며, 지금은 수익을 집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FI와 비교를 하자면 FI도 비용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계정원장(General Ledger)은 각 계정별로 발생한 금액을 상대 계정과 함께 기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시산표가 오히려 Object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산표에는 당기에 발생한 모든 계정의 기초 잔액, 당기 차변/대변 발생금액, 기말 잔액이 나타납니다.

즉,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FI에는 시산표라는 그릇, 통에 담기고, CO는 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세그먼트 중에 하나의 그릇, 통에 담기게 됩니다.

월 결산을 할 때 비교를 하면 시산표의 수익/비용 당기 발생액은 CO 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세그먼트의 수익/비용 합계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CO 결산 후에 FI와 CO 손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CO Object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수익성 세그먼트의 경우 CO Object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익을 담는데 사용하는 Object라고 생각하는게 나중에 CO와 SD/FI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O Object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CO의 마스터데이터(Master Data)에 대해 하나씩 설명 드릴건데, 먼저 원가요소(Cost Element)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요소를 설명할 때 CO Object도 반드시 같이 거론되어야 해서 먼저 CO Object를 설명 드렸습니다.

1-3. 원가요소-1차 원가요소(Primary Cost Element)

지난번에 CO Objec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CO Object는 수익/비용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으로 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 세그먼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설명할 원가요소는 CO Object와 연관이 있기에 원가요소에 앞서 CO Object의 개념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가요소는 회계에서 말하는 계정입니다. FI에서 계정(General Ledger)란 말을 사용하기에 CO는 FI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가요소는 **1 차원가요소(Primary Cost Element)**와 **2 차 원가요소(Secondary Cost Element)**로 구분됩니다.

먼저, 1 차원가요소 입니다. 1 차 원가요소는 FI의 계정과 동일합니다.

FI 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정(수익,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원가 요소는 손익 계정(수익, 비용)만 있습니다.**
CO는 손익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대차대조표 계정도 생성할 수 있으며, 저는 고정자산 예산 관리를 CO에서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 계정을 CO의 1 차 원가요소로 생성하여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손익 계정만 생성하면 됩니다.

우선 CO에서 1 차 원가요소를 하나 생성하려면 반드시 FI에서 먼저 계정을 생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FI 계정과 CO 계정이 동일하게 생성이 되겠죠. 둘다, 회계 파티이니 당연히 손익 계정을 같이 사용하는 게 당연하겠죠. IMG Setting에서 서로 다르게 생성이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1. 1 차 원가요소 조회 (T-Code : KA03)

The screenshot shows the SAP T-Code KA03 interface. The main window has a title bar '원가요소조회: 기본화면'. Below the title bar, there are input fields for '원가요소' (11000000), '관리회계 영역' (1000), '효력 시작일' (2001.01.01), and '종료' (9999.12.31). There are tabs for '기본데이터', '지시자', '기본 계정 지정', '추가필드', and '이력'. The '기본데이터' tab is active, showing fields for '이름', '내역', and '원가요소범주'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contains the value '1'). A pop-up window titled '값 범위 제한 (1) 6 엔트리 있음' is open, showing a list of cost elements under the heading 'CEC:내역'. The list includes: 1 1차 원가/원가 감소 수익, 3 부가금별 발생 처리/이연 처리, 4 차변별 발생 처리/이연 처리 = 실제, 11 수익, 12 매출액 차감, and 22 외부정산. The status bar at the bottom of the pop-up window says '6 엔트리 있음'.

[원가요소 조회]

1. 원가요소 : 원가요소를 코드화 한 것으로 10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2. 관리회계영역 : 관리회계의 조직 구조로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구분한 조직구조
- 일반적으로 FI 조직구조인 회사코드(Company Code)와 1 대 1 로 맵핑하나 여러 회사코드를 하나의 관리회계 영역으로 그룹핑할 수 있기에 회사코드보다 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다.
3. 효력시작일 : 해당 원가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효력 기간
4. 이름 및 내역 : 원가요소의 내역으로 주로 FI 계정명과 동일하게 생성한다.
5. 원가요소 범주 : 원가요소의 활용 용도에 따른 코드
 - 1) 1 : 비용이나 원가를 줄이는 수익 계정으로 대부분의 1 차 원가요소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 2) 3,4 : 충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범주로 생성하나, 충당금을 FI에서 직접 전표 쳐서 관리할 수 있기에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본다.
 - 3) 11,12 : 수익이나 매출액 차감에 해당하는 범주
 - 4) 22 : 외부정산은 내부오더 정산 시 FI 계정으로 정산이 가능한데 그 때 사용하는 범주이며 주로 고정자산 또는 선급금 등 자산 계정으로 대체할 때 사용한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1 차 원가요소의 범주는 1 번과 22 번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 번이 99%이며 22 번의 경우 선급금 대체 시 가끔 사용하고 있다.

수익도 비용처럼 범주를 1 로 생성하게 되면 코스트센터에 반영될 때 비용의 마이너스 값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를 확인 수 있고, 배부나 정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1 차 원가요소만 설명하고 다음에 2 차 원가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제품부제금지

1-4. 원가요소-2차원가요소(Secondary Cost Element)

이번에는 2 차 원가요소(Secondary Cost Eleme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원가요소는 FI 계정과 동일하고, FI 전표가 발생할 때 CO에도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2 차원가요소는 CO만 사용하는 원가요소입니다.

CO만 사용한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타 모듈(SD, MM, PP, FI)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FI전표가 발생하여 시산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CO Object(코스트센터, 내부오더, PSG)에도 수익과 비용이 반영됩니다. 주로 수익은 PSG에, 비용은 코스트센터 또는 내부오더에 반영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가요소는 1 차 원가요소입니다.

CO는 다른 모듈 특히 FI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CO의 내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부(Allocation), 정산(Settlement)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의 목적은 아이템별 실제원가 계산 및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CO 자체적으로 원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원가를 하는 방법이 배부와 정산이며, 배부와 정산의 결과를 각 CO Object에 반영(Posting)하기 위해 사용하는게 2 차 원가요소입니다.

2 차 원가요소는 CO Object에만 반영되며, 시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보니 예외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손익센터 회계가 예전에는 CO 영역이었는데, ECC 6.0 의 New G/L이 반영되면서 FI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O에서 배부 또는 정산을 했을 때 손익센터가 변경되면 FI 전표도 발생합니다.

갑자기 너무 깊이 들어 가버렸네요.

단순하게 보면 1 차 원가요소는 FI의 수익/비용 계정을 CO Object에 반영하기 위해 FI 계정과 동일하게 생성한 것이고, 2 차 원가요소는 CO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배부와 정산 시 발생하는 원가요소입니다.

* 2 차 원가요소 조회 (T-Code : KA03)

원가요소(C) 편집(E) 이동(G) 추가(X) 환경(N) 시스템(Y) 도움말(H)

원가요소조회: 기본화면

원가요소: [] 노무용역비 직접
 관리회계 영역: []
 효력 시작일: 2001.01.01 종료: 9999.12.31

기본데이터 | 지시자 | 기본 계정 지정 | 추가필드 | 이력

이름: []
 이름: 노무용역비 직접
 내역: 노무용역비 직접

기본 데이터

원가요소범주	42	평가
속성혼합	[]	
기능 영역	[]	

CECT 내역

21	내부 정산
31	오더/프로젝트 결과 분석
41	간접비 비율
42	평가
43	내부 액티비티 배부
50	프로젝트 관련 수주: 판매 수익
51	프로젝트 관련 수주: 기타 수익
52	프로젝트 관련 수주: 원가
61	소득

[2차 원가요소]

2 차 원가요소는 원가요소범주만 다르고, 나머지는 1 차 원가요소와 동일합니다. 원가요소 범주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21, 42, 43 번입니다.

1. 21(내부정산) : 하나의 내부오더에서 다른 CO Object(다른 내부오더, 코스트센터, PSG) 등으로 비용을 정산할 해당 내부오더의 대변에 Posting할 2 차 원가요소

2. 42(평가) : 액티비티(Activity)가 발생한 코스트센터에는 월 중에 실제값이 아닌 계획값이 반영되는데 이를 실제 값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2 차 원가요소

→ 월중 계획값도 동일한 2 차 원가요소로 해당 코스트센터 대변에 Posting

3. 43(내부 액티비티 배부) : 하나의 코스트센터에서 발생한 Activity를 다른 코스트센터로 배부할 때 사용하는 2 차 원가요소

→ Activity가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코스트센터 차/대변에 Posting된다.

4. 41(간접비 비율) : IMG Setting의 원가계산표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 비용이나, Activity가 발생했을 때 정의된 간접비 비율만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Posting할 때 사용하는 2 차 원가요소

→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CO에만 사용하고, 나중에 실제값으로 재평가함

나머지 2 차 원가요소 범주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원가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먼저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걸 빠뜨리고 원가요소를 먼저 설명했네요.

바로 조직구조입니다. 관리회계영역, 회사코드, 플랜트 등등 각 모듈에서 사용하는 조직구조와 관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5. SAP 조직구조

지난번까지 SAP CO의 원가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원가요소를 얘기하다 보니 관리 회계영역(Controlling Area)가 나와서 이 부분도 약간이라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번에는 SAP의 조직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직구조란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법인, 회사, 공장, 부서, 팀까지 그 밑에 개인까지도 하나의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SAP에는 다양한 모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M, PP, SD, FI, CO가 있는데, 각 모듈별로 사용하는 대표 조직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제조업을 예로 들면, 회사(법인)이 만들어지고 그 회사에 각 지역별 공장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의 공장 자체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회사는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회사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은 그룹으로 이라고 칭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여러 계열사가 존재합니다. 또 각 계열사는 1 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를 SAP에 각 모듈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조	내용	비 고
경영단위 (Operating Concern)	CO 수익성 분석에서 사용	CO 수익성 분석에서 사용
관리회계영역 (Controlling Area)	CO에서 간접비를 관리 (CCA, OPA, PC)	CO에서 간접비를 관리 (CCA, OPA, PC)
회사코드 (Company Code)	FI에서 법인을 구분	FI에서 법인을 구분
플랜트 (Plant)	생산에서 사용	생산에서 사용
영업조직 (Sales Organization)	판매에서 사용	판매에서 사용
구매조직 (Purchase Organization)	자재에서 사용	자재에서 사용

[SAP 조직구조]

1. CO 조직 구조

가. 경영단위(Operating Concern)

- 최상의 조직구조로 SAP에서는 회계기간(Fiscal year)과 통화(Currency)가 동일한 관리회계영역을 동일한 경영단위로 묶어 관리할 수 있다.
- 하나의 경영단위에 1 개 이상의 관리회계영역을 연계하여 손익을 관리할 수 있다.
- 예) 한국 3 개, 인도에 2 개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인 경우 한국 3 개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인도 2 개를 또 다른 경영단위로 묶어서 경영단위별로 손익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나. 관리회계영역(Controlling Area)

- CO에서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여러 개의 회사코드를 하나의 관리회계영역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코드와 1 대 1 로 맵핑하여 관리회계영역별 손익/비용을 관리한다.

2. FI 조직구조

가. 회사코드(Company Code)

- 법적 효용성을 갖는 독립적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관리하는 기본 조직단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을 하나의 회사코드로 생성한다.

나. 사업영역(Business Area)

- 하나의 회사코드에는 여러 개의 사업군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사업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FI 조직 구조이다.

3. 물류 조직 구조

가. 플랜트(Plant)

- 물류(자재, 생산, 판매)에서 공장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조직구조로 하나의 회사코드에서 1 개 이상의 플랜트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영업조직(Sales Organization)

- 판매에서만 사용하는 조직구조로 각 영업조직별 관리하는 고객이나 제품이 다른 경우 영업조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랜트와 1 대 1 로 생성한다.

다. 구매조직(Purchasing Organization)

- 자재에서만 사용하는 조직구조이며, 영업조직과 마찬가지로 플랜트와 1 대 1 로 생성한다.

이외에도 조직구조가 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것은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SAP에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 조건으로 각 모듈별로 조직구조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A'공장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으면 플랜트 'A'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가'회사의 손익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가' 회사코드 또는 '가' 관리회계영역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SAP 조직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각 모듈별로 사용하는 조직구조가 별도로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 모듈별로 조직구조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배부와 정산의 개념을 설명하고 원가요소 외 다른 CO의 기준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배부(Allocation)와 정산(Settlement)

이번에는 CO 모듈에서 중요한 개념인 배부(Allocation)와 정산(Settlement)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배부와 정산은 제품별 원가 및 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가/관리 회계 책에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등 배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단계배부, 상호배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배부의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SAP CO 모듈에서 배부와 정산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배부와 정산을 구분했을까요?

CO의 많은 Object(코스트센터, 내부오더 등 기억하시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스트센터 회계에서는 배부, 내부오더 회계에서는 정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 개 모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죠.

좀더 설명을 해볼까요?

배부나 정산을 왜 하는 것일까요?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것이 회식입니다.

친구 4 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고, 밥값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밥값이 80 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쓸게'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금액이 큼니다. (몇 만원이라면 몰라도 --;)

그래서 친구들과 협의해서 인원수대로 정확히 1/4 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담한 비용은 20 만원, 친구들이 각각 부담한 비용도 20 만원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코스트센터라고 생각한다면

처음 제 코스트센터에 80 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 비용을 1/4 로 나눈 20 만원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 코스트센터에는 20 만원이 남고 다른 친구들 코스트센터에도 각각 20 만원씩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배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비용을 사용한 원천 코스트센터를 찾아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보면 FI는 총 비용 80 만원이 시산표에 반영되고, 그와 동시에 CO의 제 코스트 센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FI는 총비용만 알면 되니까 더이상 손댈 필요가 없지만 원가 입장에서는 실제 비용을 사용한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배부를 통해서 실제 사용한 부서에 비용 부담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배부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이는 회계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밥을 먹을 때 수익은 배부름, 비용은 지불한 금액인데 실제 배부름은 4 명이 느꼈지만 비용은 저만 냈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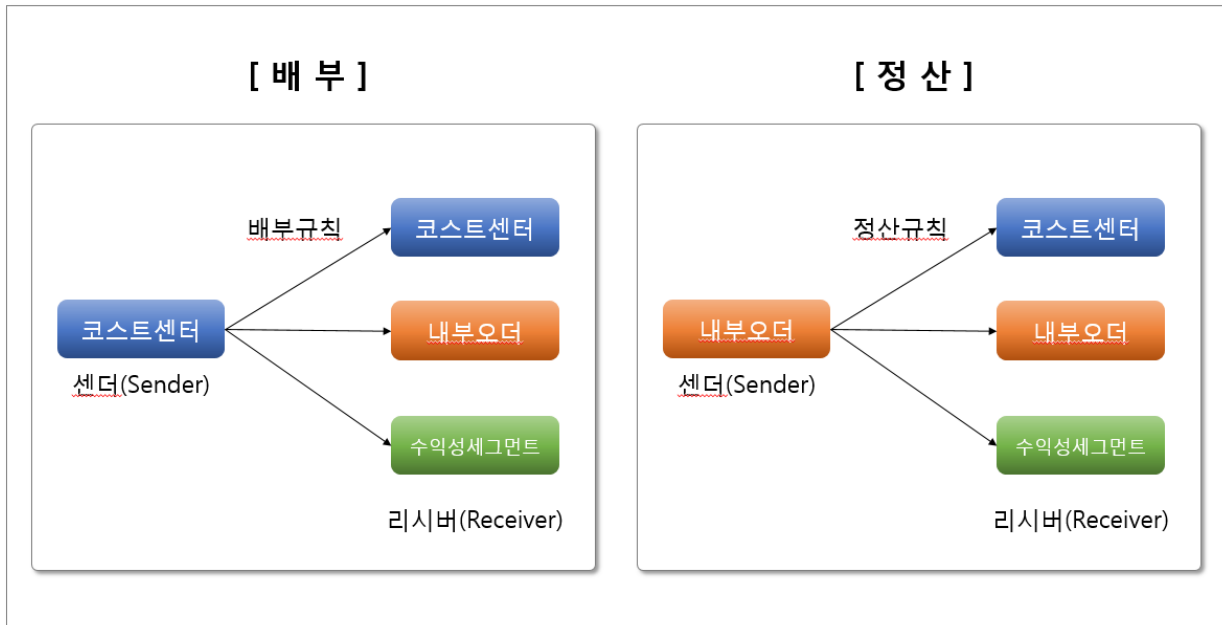
그래서 배부를 통해 친구들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부름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은 코스트센터를 예로 들었지만, 내부오더(특정 목적을 위해 생성한 CO Object)에 발생한 비용도 다른 CO Object로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정산(Settlement)**입니다.

개념은 배부와 동일합니다. 단지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배부와 정산]

코스트센터의 비용을 다른 CO Object(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 세그먼트)로 나눠주는 것은 **배부**

내부오더의 비용을 다른 CO Object(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 세그먼트)로 나눠주는 것은 **정산**이라고 합니다.

배부든 정산이든 필요한 정보가 4 가지 입니다.

1. **센터(Sender)** : 비용이 발생한 코스트센터 또는 내부오더
2. **배부/정산할 원가요소** : 센터(Sender)에서 발생한 원가요소 및 금액
3. **리시버(Receiver)** : 배부/정산 금액을 받을 코스트센터, 내부오더 또는 PSG
4. **배부기준** : 센터에서 리시버로 비용을 나눠주는 기준

앞서 밥값을 예로 들면,

1. **센터** : 내 코스트센터
2. **배부/정산할 원가요소** : 밥값으로 지불한 80 만원
3. **리시버** : 친구들 코스트센터
4. **배부기준** : 인원 수

여기서 배부기준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원수로 했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 몸무게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더 많이 낼 수도 있으니 급여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 중에 여자가 있다면 동일한 배부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여자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방식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 만원의 비용을 배부할 때 내가 지불해야할 금액 20 만원을 제외한 60 만원을 3 명의친구에게 배부할 수도 있고, 80 만원 전체를 나를 포함한 4 명에게 다시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배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부담할 비용도 달라지는데 그걸 매번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SAP의 시스템적으로 보면

배부는 배부사이클에서 배부 규칙을 설정하여 해당 배부 사이클에 배부를 할 코스트센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산은 하나의 내부오더에 정산규칙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부나 정산이나 위에서 말한 4 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 배부나 정산이 실행됩니다.

배부사이클과 정산 규칙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배부와 정산의 개념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1-7. 코스트센터(Cost Center)

지금까지 SAP CO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CO의 기준정보 (Mater Data) 중 원가요소(Cost Element)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CO 모듈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용어가 낯설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나 책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생소했고 독일에서 만든 시스템이라서 그런지 용어 자체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천천히 SAP CO 모듈의 용어에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다 낯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CO 기준 정보 중에서 코스트센터(Cost Cent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하면 '원가 중심점'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되고 그냥 코스트센터라는 고유명사로 인식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코스트센터는 회계의 비용을 집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CO Object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하나의 팀당 하나의 코스트센터를 생성하여 각 팀에서 발생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하나의 팀을 여러 개의 코스트센터로 생성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팀 밑에 파트 조직이 있는 경우 파트를 하나의 코스트센터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코스트센터 모인 비용은 배부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불함으로 실제 수익을 창출한 코스트센터나 내부오더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표준원가 및 실제 원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센터에 비용이 반영되려면 FI 전표 또는 물류 처리 시 반드시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코스트센터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FI 전표 입력 시 코스트센터 입력하는 필드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시 : FI 전표 중 코스트센터 입력 화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스트센터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회사의 조직구조에 맞춰 코스트센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하나의 팀을 하나의 코스트센터로 만들어서 부서, 실, 본부 등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최상위의 코스트센터 그룹을 하나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표준계층구조 (Standard Hierarchy)'라고 합니다.

가장 뼈대가 되는 조직의 계층구조를 뜻합니다.

코스트 센터의 표준 계층구조 조회

오브젝트관리자

시작 2019.01.01

표준 계층구조	이름	활성화 상태	책임자	회사 코드
1000	1000			
100001	0000100001	■		
100002	0000100002	■		
200001	0000200001	■		
200002	0000200002	■		
S81000	S81000			
A21000	A21000			
522000	522000			
1100	1100			
100000	100000			
140000	140000			
150000	150000			
1100	1100			
200000	200000			
240000	240000			
250000	250000			
1100	1100			
300000	300000			
340000	340000			
350000	350000			
1100	1100			
268000	0000268000	■		
368000	0000368000	■		

세부사항 코스트 센터 그룹

[표준계층구조 예시]

표준계층구조 외에 목적에 맞게 코스트센터를 그룹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바로 ‘배부’ 또는 ‘정산’을 말합니다.

같은 배부 규칙을 따르는 코스트센터를 그룹으로 묶어 동일한 배부 사이클에서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없으면 모든 코스트센터마다 배부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하겠죠.

이는 아주 불편하고 시간이 오랜 걸립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하기 위해 코스트센터를 그룹으로 관리할 수 가 있습니다.

***코스트센터 조회 (T-Code : KS03)**

[코스트센터 조회]

1. 코스트센터 : 10 자의 코드
2. 관리회계영역 : 해당 코스트센터가 소속된 관리회계영역
3. 효력시작일
 - 가. 해당 코스트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ex) 2019 년 3 월 1 일부로 생산팀에서 생산 1 팀으로 바뀌는 경우
 - 생산팀 : From 2015.01.01, To 2019.02.28
 - 생산 1 팀 : From 2019.03.01, To 9999.02.28
4. 이름 및 내역 : 코스트센터 명칭
5. 코스트센터 범주
 - IMG Setting에서 설정한 것으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설정이 가능함

- 일반관리 부서, 제조관리부서, 연구소 등을 범주로 구분 가능
- 단순 구분 목적이며 배부할 때 센터 선택기준이 될 수 없음

6. 계층구조영역

- 바로 상위의 계층구조그룹
- 관리부서에 회계팀, 총무팀이 있을 때 회계팀 코스트센터와 총무팀 코스트센터 모두 관리부서가 계층구조 영역에 입력됨

7. 기능영역

- 제조관리, 영업관리, 일반관리 등 기능영역으로 구분 가능
- 실제 배부할 때 기능영역이 센터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음

8. 손익센터 : 구분회계를 할 때 사용하는 손익센터 -> 현재는 FI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상으로 코스트센터 및 코스트센터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른 탭에서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가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우선은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 액티비티 유형(Activity Type)

이번에는 CO 기준정보(Master Data) 중에서 **액티비티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동유형기준원가에 대해 배운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액티비티라는 놈이 활동유형기준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 SAP의 CO 모듈은 관리/원가 회계 책의 이론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는 표준원가에서 실제원가를 구하는 방식을 보고 그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액티비티 유형(Activity Type)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활동유형' 참 쉽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유형은 활동유형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언가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액티비티 유형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활동, 움직임** 그런 것을 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활동, 움직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회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기계들을 구입했고, 그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 ① 제품을 만드는 기계의 활동,
- ②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의 활동
- ③ 사람을 관리/지원하는 사람의 활동

이런 활동 즉 액티비티(활동)가 투입되어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료는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료를 운반하고 관리하고 기계에 투입하는 사람의 활동(자동 투입되는 경우 기계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액티비티**라고 하고 사람, 기계 활동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액티비티 유형**
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크게 기계 활동, 사람활동 2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활동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활동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는가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여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시간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시, 분, 초.. 참 쉽죠잉~~^^

아래는 SAP 액티비티 유형을 조회 화면입니다.(T-Code : KL03)

액티비티 유형 조회: 기본화면

액티비티 유형:
 관리회계 영역:
 효력 시작일: 2003.01.01 종료: 9999.12.31

기본데이터 | 지시자 | 출력 | 이력

이름:
 이름:
 내역:

기본 데이터

액티비티단위: H 시간
 코스트센터범주: *

배부기본값

액티비티유형범주: 1 수작업 엔트리, 수작업배부
 배부원가요소:
 가격지시자: 1 계획액티비티에 기준한 자동계산
☐ 실제 수량 설정 ☐ 평균 가격
☐ 계획 수량 설정 ☐ 선배부 고정원가

실제 배부의 차이 값

실제액티비티유형범주: 1 수작업 엔트리, 수작업배부
 실제가격 지시자: 5 계획 액티비티에 기준한 자동 실제가격

[액티비티 유형 조회]

1. **액티비티 유형** : 액티비티 유형을 코드형식으로 생성한다.
 예) 사람활동 : Man, 기계활동 : Machine
2. **관리회계영역** : 액티비티 유형도 관리회계영역별로 다르게 생성할 수 있다.
 해당 액티비티를 사용할 관리회계영역을 확인할 수 있음
3. **효력시작일** : 해당 액티비티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
4. **이름 및 내역** : 액티비티 유형의 이름 및 내역
 예) 액티비티 유형 : Man → 사람활동

[기본데이터]

1. 액티비티 단위

- 액티비티 유형을 측정할 단위로(시, 분, 초, 미터) 액티비티 유형에 맞게 선택

2. 코스트센터 범주 :

- 코스트센터 마스터데이터에서 설정한 코스트센터 범주로 특정 코스트센터 범주에만 해당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게 제한 할 때 사용 '*'는 모든 코스트센터 범주에 액티비티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임

[배부 기본값] - 계획

1. 액티비티 유형 범주

액티비티 유형의 계획값을 입력하고 배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1 : 수작업 엔트리 수작업 배부
- 2 : 간접결정, 간접배부
- 3 : 수작업 엔트리, 간접배부
- 4 : 수작업 엔트리, 비배부

2. 배부원가요소

이 부분은 할말이 많아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 가격지시자

계획 액티비티 단가(표준원가 계산하는 단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으며 지금은 시간당 단가라고 알고 지나가겠습니다.)를 계산하는 방법 선택

- 1 : 계획액티비티에 기준한 자동계산
- 2 : 조업도에 기준한 자동계산
- 3 : 수동정의

[실제 배부의 차이값] - 실제

1. 실제 액티비티 유형 범주 : 액티비티 유형의 실제값을 입력하고 배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NULL : 계획
- 1 : 수작업 엔트리, 수작업배부
- 2 : 간접결정, 간접배부
- 3 : 수작업 엔트리, 간접배부

- 4 : 수작업 엔트리, 비배부
- 5 : 목표=실제 배부

2. 실제가격 지시자 : 실제 액티비티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

- 5 계획 액티비티에 기준한 자동 실제가격
- 6 조업조에 기준한 자동 실제가격
- 7 실제배부에 대한 수동결정

위와 같이 액티비티 유형 조회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말이 많은 '배부원가요소'입니다.

흔히들 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1.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일을 한다.

2. 일을 하니까 돈을 준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SAP는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에 따라 자연히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기계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비용(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람, 기계마다 다 다르고, 동일한 사람/기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는 후자를 선택해서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을 한다는 건 SAP에서는 활동(액티비티)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바로 그 비용(원가요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액티비티 유형 마스터의 '**배부원가요소**'가 그 비용입니다.

사람이 1 시간 일을 했다면 액티비티 유형 'Man'으로 1 시간이 그 사람이 속한 코스트센터에 입력됩니다. 활동 시간이 입력되었으니 비용도 동시에 인식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코스트센터 대변에 '배부원가요소'에 입력된 원가요소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배부원가요소는 실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 차 원가요소로 '원가요소범주'가 43(내부 액티비티 배부)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비용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단순하게 비용은 시간 * 시간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간당 단가는 월급을 받기 전까지 계산하기 어렵게 때문에 계획 시간당 단가로 우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 시간 * 계획 시간당 단가(사람 임율)로 계산한 금액을 코스트센터 대변에 '배부원가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

- 제품 만드는데 소요된 사람 활동 시간 : 5 시간
- 계획 사람 활동의 시간당 단가 : 10,000 원
- 비용 : 5 시간 * 10,000 원 = 50,000 원
- 50,000 원이 활동이 발생한 코스트센터 대변에 '배부원가요소'로 전기되며,
그 제품의 PCC(제품원가취합처)의 차변에도 전기됩니다.
- * PCC :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집계되는 CO Object

위와 같이 액티비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①액티비티 유형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한 것입니다.
- ②액티비티 유형이 1 단위 발생하면 비용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며,
- ③그 비용을 전기할 때 사용되는 원가요소가 '배부원가요소'이며 원가요소범주가 43 인 2 차 원가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기준정보만 하더라도 설명할 것이 많네요.--;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통계주요지표(SKf, Statistical Key Figures)

CO 기준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계주요지표 (Statistical Key Figur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영어 줄임말로 SKF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질 않네요.

통계주요지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단어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사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CO는 제품별 실제원가를 계산하고, 제품별 손익을 확인하는게 목적입니다.
실제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배부와 정산이란 걸 하게 됩니다.

배부는 코스트센터에 발생한 비용을, 정산은 내부오더에 발생한 비용을 다른 CO Object(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세그먼트 등)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나시죠?)

배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부나 정산이나 로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를 할 때 센터, 배부할 금액, 리시버, 배부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배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배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계주요지표(SKf)' 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4 명이 밥을 먹고 내가 카드로 전체 금액을 계산한 후 1/n을 한다면, 친구 4 명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아래와 몇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1. 단순히 인원수로 나눈다.
2. 각자 개인이들이 시킨 메뉴의 가격별로 나눈다.
3. 몸무게 기준으로 나눈다(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먹는다는 가정인데, 이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
4. 돈을 많이 버는 기준으로 나눈다.
5. 부양가족 순으로 나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배부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기준 1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친구들 모두 불만이 없는)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이런 다양한 배부 기준들을 CO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부를 할 때는 어떤 배부 기준을 사용할 지 선택하면 됩니다.

통계주요지표만 배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활동시간, 기계 활동시간으로 비용을 배부할 수도 있고,

(예 : 연료비는 기계 활동 시간으로 비용 배부)

특정 1 차 원가요소 발생한 비용에 따라 비용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 퇴직급여충당금은 급여+상여 기준으로 배부)

활동시간을 우리는 액티비티, 1 차원가요소는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배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①수익/비용, ②액티비티 유형, ③통계주요지표입니다.

원가요소(수익/비용), 액티비티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계주요지표로 사용자 생성해야 합니다.

인원수, 몸무게, 사무실 면적 등을 SKF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통계주요지표(SKF)는 한마디로 배부기준(배부적수)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SAP의 통계주요지표 마스터를 확인해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T-Code : KK03 - 조회)

통계주요지표 조회: Master Data

통계주요지표

관리회계영역

기본 데이터

이름

통계주요지표단위 세대구성원수

주요지표범주 ☒ 고정값 ☐ 총액

[통계주요지표 조회]

1. 통계주요지표 : 생성할 통계주요지표 (예 : PQ, KG, KM)
2. 관리회계영역 : 해당 통계주요지표가 생성된 관리회계영역
3. 이름 : 인원수, 몸무게, 거리 등 통계주요지표의 이름
4. 통계주요지표 단위
 - 각 통계주요지표를 측정할 단위
 -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트센터별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단위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만 배부를 위해서는 단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나 정산은 단위와 상관없이 배부 받은 리시버 Object의 통계주요지표의 상대적인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단위를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5. 주요지표범위

- 고정값과 총액 : 이것도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 계획값을 입력할 때 1~12 년의 기간을 주고 한꺼번에 1200 이란 값을 입력했을 때 매월 1200 이 입력되는지, 매월 100 씩 입력되는지 기능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고정값인 경우 매월 1,200 이 입력되고 총액은 매월 100 씩 입력됨)
- 월별로 계획값을 입력한다고 하면 고정값이나 총액이나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통계주요지표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배부적수'라는 것만 알면 될 거 같습니다.

1-10. 내부오더(Internal Order)

지금까지 코스트센터 회계 영역의 CO 기준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가요소, 코스트센터, 액티비티 유형 및 통계주요지표까지 4 가지를 설명했네요.

이번에는 내부오더(Internal Ord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오더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가도 매우 어렵습니다(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내부오더는 이벤트, 특별성 경비를 별도로 집계하기 위한 CO Object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
이벤트, 특별성 경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하하하. 그저 웃지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같은 각종 행사 비용 집계, 개발비용 집계, Try-Out 비용 집계, 각종 프로젝트 비용 집계, 고정 자산 관리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부오더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하나의 제품 및 서비스도 하나의 내부오더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제품원가취합처 또는 생산오더 → 제품 품번 하나마다 재료비 및 가공비를 집계하는 내부오더 중 하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 프로세스나 SAP에서 회계처리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내부오더는 기본적으로 오더유형(Order Type)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더 유형에 따라 프로세스가 모두 다릅니다. 즉, 이벤트 및 특별성의 종류만큼 오더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즉, 내부오더라고 말하지만 오더유형별로 CO Object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오더유형은 정산프로파일, 계획프로파일, 예산프로파일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 집니다. 심지어 오더유형별로 값을 입력하는 필드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오더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아. 갑자기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버렸네요.

이 부분은 내부오더 IMG Setting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오더 조회화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더 유형별로 입력하는 필드가 다르고 내부오더 번호도 자동으로 생성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센터의 배부처럼 정산 규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센터, 리시버, 정산원가요소 등등. 설명할 것이 무진장 많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내부오더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바로 통계값(Statistical Figures)입니다.

통계학도 아닌데 통계주요지표, 통계값..등
통계란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정말 헷갈리네요.

통계값은 그냥 참조값입니다. 실제값이 별도로 있고, 그냥 이런 것이 발생했었다라는 정도의
참고치로 보는게 통계값입니다.

그러면 통계값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1 차 원가요소가 있는 FI 계정이 전기될 때는 반드시 CO Object(코스트센터, 내부오더, 수익성세그먼트 등)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1 개만 입력해야 할까요?

만약에, 교통비 전표를 치면서 CO Object를 입력할 때 코스트센터와 내부오더 2 가지를 입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값이 코스트센터와 내부오더 2 군데 들어가게 되면 안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통계값입니다.

이 경우 실제값은 내부오더에 들어가고, 코스트센터에는 통계값으로 들어갑니다.
 통계값은 배부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코스트센터(팀)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는
 정도만 확인하고 실제값은 내부오더에서 확인하고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내부오더에 실제값이 들어가고 코스트센터에 통계값이 들어갈까요?
 SAP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트센터에 실제값을 입력하고 내부오더에 통계값을 입력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내부오더의 힘을 코스트센터보다 약하게 만드는거죠. 간단하죠?
 아니라고요??? 아니 정말 간단합니다.
 내부오더 마스터를 생성할 때 해당 오더를 실제오더로 생성할 것인가?
 아니면 통계용 오더로 생성할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체크박스 하나로.

아래 그림의 통계오더에 체크를 하고 실제전기 Cctr(코스트센터)에 실제로 값을 입력할 코
 스트센터를 입력해주면 내부오더에는 통계값이 코스트센터에는 실제값이 입력됩니다.

[통계오더]

사내 체육대회를 했다고 가정하면 관련 비용은 각 팀에서 부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관리팀이나 총무팀에서 일괄로 지불하는게 편하겠
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 가지입니다.

1. 코스트센터 실제값, 내부오더 통계값

체육대회 전체 비용은 내부오더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코스트센터에 실제값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 팀으로 배부(배부기준 : 인원수)를 한다.

2. 코스트센터 통계값, 내부오더 실제값

체육대회 전체 비용은 내부오더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내부오더의 비용을 총무팀 코스트센터로 정산하고, 총무팀 코스트센터에 각팀으로 배부

3. 코스트센터 통계값, 내부오더 실제값

체육대회 전체 비용은 내부오더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내부오더에서 각팀으로 정산 (각 팀별 배부할 금액 또는 비율을 산정해서 정산 규칙에 입
력)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각자 회사의 목적에 맞게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 1 번을 적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부오더는 용도가 다양하며, 각 유형별로 프로세스 및 정산 규칙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값(Statistical Figure)의 개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11. 수익성세그먼트(Profitability Segment)

이제 SAP CO 모듈의 기준정보(Master Data) 중 마지막입니다. 이 외에서 활동기준, 손익센터 등이 있지만 제가 잘 모르고 FI 쪽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어 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제가 어느정도 아는 부분만 설명하는게 좋을 같습니다.

수익성세그먼트(Profitability Segment) .. 용어가 참 생소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특성(Characteristic)
- 특성치(Characteristic value)
- 값필드(Value Field)

역시나 용어가 생소하네요.
시간이 흘러 저절로 익숙해지는게 최선인 듯 합니다.

CO에서는 제품별 손익을 확인하는게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FI는 법인/사업장별로 손익만 확인하지만 CO는 다양한 조건(?)별로 손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별 손익, 유통경로(내수/수출)별 손익, 아이템별 손익과 고객/유통경로/아이템을 조합한 손익 등 여러가지 '조건'별로 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조건'이 바로 **특성(Characteristic)**입니다.

고객, 유통경로, 아이템, 매출형태, 플랜트 등등 회사별로 보고자 하는 조건이 다양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SAP CO에서는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특성치(Characteristic value)는 특성에 대한 값입니다.

고객이라는 특성에는 A고객, B고객, C고객 등의 값을 입력할 수 있고 유통경로라는 특성에는 내수, 수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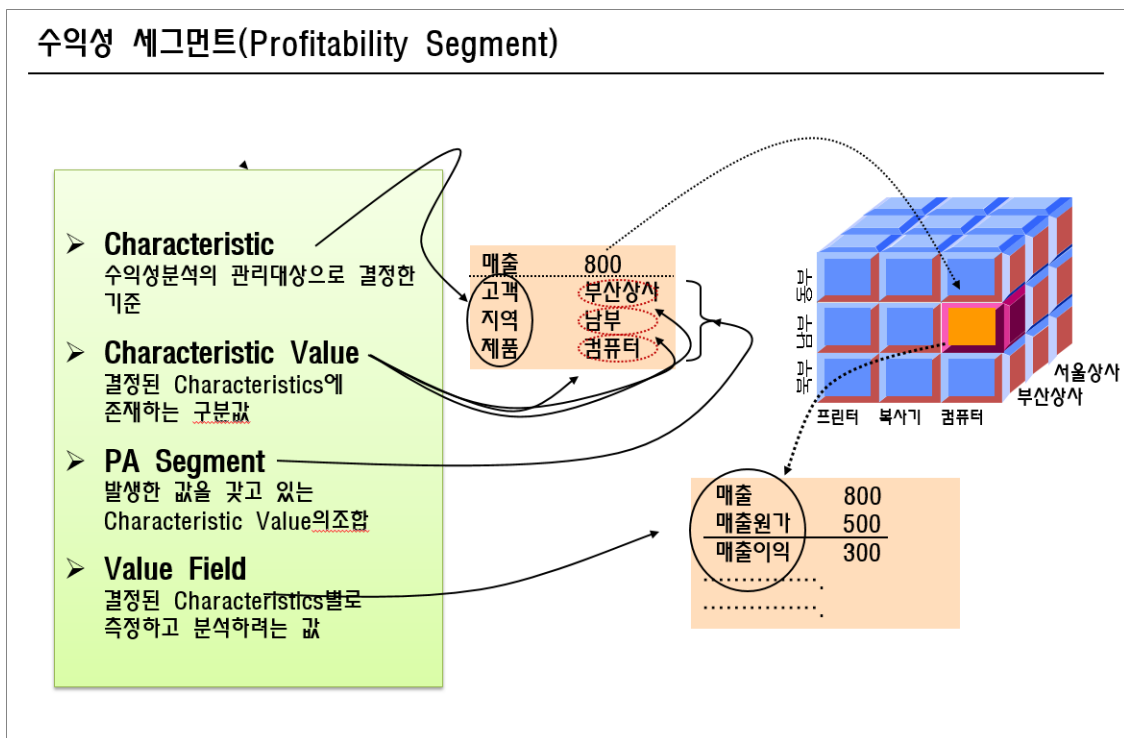
손익을 확인할 때 어떤 항목을 확인할까요?

기본적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며, 제조업이라면 재료비, 노비, 제조경비도 확인합니다. 재료비도 원재료비, 구입부품비, 부재료로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이런 항목을 **값필드(Value Field)**라고 합니다.

용어가 생소하지만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성 세그먼트(PA Segment)**는 무엇일까요?

바로 특성, 특성치, 값필드의 조합입니다.



[수익성 세그먼트]

제품원가 500 원짜리 컴퓨터 1 개를 부산상사에 800 원에 판매를 했다면 FI에서는 2 개의 분개가 발생합니다.

차변) 외상매출금 800 / 대변) 매출액 800

차변) 매출원가 500 / 대변) 제품 500

CO에서는 분개가 없는 대신 수익과 비용인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CO Object에 반영이 됩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코스트센터나 내부오더가 아닌 수익성세그먼트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될까요??

아래와 같이 특성 Tab과 값필드 Tab이 합쳐진 수익성 세그먼트 전표 1 장이 생성됩니다.

1) 특성 Tab

- 고객 : 부산상사
- 제품 : 컴퓨터
- 지역 : 남부

2) 값필드 Tab

- 매출액 : 800
- 매출원가 : 500

일반적인 차변과 대변 형태로 이루어진 전표가 아닌 table 형태의 전표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익성세그먼트(들이 여러 개 모이면, 특성별로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A를 선택하면 수익성세그먼트의 특성 중 고객 A를 포함하는 모든 전표를 가지고 와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합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특성을 조합하여 손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세그먼트가 왜 중요할까요?

CO의 최종 목적은 손익 관리입니다.

물론 물류나 타 모듈도 관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손익 관리입니다.

바로 특성별 손익 관리.

배부/정산 등으로 통해 제품별 실제원가를 구하고 이를 다시 PA 쪽에 반영하고 일반 관리비도 PA에 배부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PA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야 손익 관리가 되니까요.

드디어 SAP CO 기준정보에 대한 설명을 일단락 지을 수 있겠네요.

솔직히, 수익성 세그먼트는 나중에 설명하려고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더라도 기준정보를 설명할 때 미리 언급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물류 모듈 기준 정보

2-1. PP(생산) 모듈 기준정보

CO 모듈은 타모듈(MM, PP, SD, FI)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CO는 자체적으로 전표나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것이 거의 없으며, 자재(MM), 생산(PP), 판매(SD) 및 재무회계(FI)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 모듈의 이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이해에 앞서 다른 모듈의 기준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P 모듈의 기준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PP는 Production Planning의 줄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검색해보세요.)

우리말로는 그냥 '생산'입니다. 더 어렵거나 고급진 용어가 생각나질 않네요. ^^

생산의 주요 업무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준정보(Master Data)가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육하원칙 기억하시나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① 무엇을 만드느냐?
- ② 어디서 만드느냐?
- ③ 누가 만드느냐?
- ④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느냐?
- ④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육하원칙이라고 했는데, 5 가지 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5 가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왜 만드느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팔려고 만들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기준정보를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위의 5 가지에 대한 답이 **생산의 기준정보**라고 생각합니다.

PP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2 가지 입니다.

오더 방식과 반복제조 방식.

저는 반복제조 방식만 경험해봤고 오더 방식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제조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무엇을 만드느냐?

각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다르겠죠? 그 제품을 정의하는 것으로 SAP에서는 [자재마스터\(Material Master\)](#) 있습니다.

자재마스터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재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SAP 자재유형은 크게 4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제품 (FERT, 퍼트 ,Finished products), 반제품 (HALB, 할브, Semi-finished products) 2 가지입니다. 자재 유형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② 어디서 만드느냐? ③ 누가 만드느냐?

제품이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SAP에서는 [작업장\(Work Center, T-Code : CR03\)](#)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요 설비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생성합니다.

작업장에는 기계 대수와 필요 인원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스케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조화: 생산능력개요

HRMS 계층구조

플랜트
작업장

기본 데이터 기본값 생산능력 일정 계획 원가계산

개요

생산능력 범주	001	기계	생산능력 단속 제어
공유 생산능력		기계	계산식 관련
셋업계산식			계산식 관련
처리계산식	SAP006	생산: 기계소요량	계산식 관련
해체계산식			계산식 관련
기타계산식			
배분			
내부 분배 키			

생산능력 범주	002	사원	생산능력 단속 제어
공유 생산능력		사원	계산식 관련
셋업계산식			계산식 관련
처리계산식	SAP007	생산: 노동소요량	계산식 관련
해체계산식			계산식 관련
기타계산식			
배분			
내부 분배 키			

[작업장 생산능력 Tab]

작업장의 '원가계산' 뷰를 확인하면 코스트센터를 입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PP 모듈과 CO 모듈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하나 CO에서는 액티비티 유형을 여러가지 생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기억 나시죠?) 작업장에서 CO에서 생성한 액티비티 유형 중 어떤 액티비티를 사용할 것인지도 선택합니다. 최대 6 가지 액티비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 액티비티내역	액티비티 유형	액티비티단위	참...	계산식...	계산식 내역
기계	Machine	MI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P006	생산: 기계소요량
노동	Man_Ac2	MI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P007	생산: 노동소요량
외주비			<input type="checkbox"/>		
기계1	Maintenance	MI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P006	생산: 기계소요량
기계2	Depreciation	MI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P006	생산: 기계소요량
노동1	Man_Ac1	MI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P007	생산: 노동소요량

[작업장 원가계산 Tab]

그리고, 작업장에서 액티비티 유형을 선택할 때 작업장에 입력된 코스트센터에도 각 액티비티유형별 계획값 또는 계획단가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CO에서 생성한 여러 액티비티 유형 중 작업장과 그 작업장과 연결된 코스트센터에서 적용할 액티비티 유형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업장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CO 담당자니까 CO와 연결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④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느냐?

SAP에서 BOM(Bill of Material)이라는 기준정보로 관리됩니다. (T-Code : CS03)

완제품(FERT)을 생산하는 투입되는 재료와 그 재료의 소요량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재 BOM 조회: 일반 품목 개요

하위 품목

신규 엔트리

헤더

유효 기간

자재

플랜트

대체 BOM

1

자재

전표

일반

항목	ICt	구성요소	구성부품내역	수량	Un	Asm	STs	효력시작일	효력종료일
0010	L	00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020	L	00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3.11.02	9999.12.31
003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04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05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06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08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090	L	05		2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10	L	05		1	EA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20	L	05		1	EA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3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40	L	05		2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50	L	05		1	EA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6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7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8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19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0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10	L	05		4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2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3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4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5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6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70	L	05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80	L	20		4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6.13	9999.12.31
0290	L	22		1	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2.08.17	9999.12.31

[BOM 조회]

BOM 자체는 CO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표준원가나 예비원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를 계산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⑤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SAP의 공정(Routing) 마스터입니다. (T-Code : CA03)

1 개의 제품을 만들 때 생산 방식은 하나뿐일까요? 아니죠.

A설비에서 만들 수도 있고, B설비에서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가' 작업자가 만들 수도 있고, '나' 작업자가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작업장(설비)별로 표준 사이클 타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 마스터는 해당 제품이 생산되는 모든 작업장과 연결하여 생성한다.

공정 조회: 작업 개요

◀ ▶ ⚙ 📄 📊 📝 작업장 ⚙ 구성부품 할당 ⚙ 순서 ⚙ PRT ⚙ 검사 특성 📊

자재
순서 0

작업개요							
	작업	SOp	작업장	Plnt	제...	표준 텍스...	내역
	0010				ZP01		조립

[공정 마스터의 작업장 연결]

설비와 연결된 마스터는 작업장(Work Center)이고, 그 작업장에 필요한 인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정마스터에서 중요한 정보는 표준사이클 타임입니다.

제품 1 개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액티비티 유형의 표준 사이클 타임입니다.

공정 조회: 작업 세부사항

◀ ▶ 🏠 📝 작업장 🏭 공정 📅 순서 🏗️ 구성부품 할당 🏠 PRT

자재

작업

작업/액티비티 0010 하위 작업

작업장 / Plant /

제어 키 ZP01

표준 텍스트 키

조립

☐ 설명있음

표준값

기본수량 1

작업 단위 EA

휴식 0.000

단위변환계수

헤더	단위	작업	단위
1	EA	<=>	1 EA

	표준값	UN	액티비티유형	효율
기계	472	S	Machine	
노동	472	S	Man_Ac2	
외주비	0	EA		
기계1	472	S	Maintenance	
기계2	472	S	Depreciation	
노동1	472	S	Man_Ac1	

비즈니스 프로세스

[공정 표준사이클 타임]

각 제품별로 공정마스터를 생성하고, 공정 마스터는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작업장마다 표준사이클 타임을 셋팅합니다.

그리고, 각 작업장 마스터에는 작업장에서 제품이 1 개 생산될 때마다 액티비티(활동 또는 공수)가 입력될 코스트센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이해 되나요?

제품(자재마스터) - 공정 - 작업장 - 코스트센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면, CO 코스트센터별로 생산되는 품번도 조회할 수가 있고,(꼭 한번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 CO와 연결된 작업장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정 및 작업장 마스터에서 확인했듯이 액티비티 유형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즉, 액티비티 쿼터티(Quantity)(→ 수량 또는 시간)가 코스트센터로 반영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공수'라고 표현을 합니다(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공수).

추가로 중요한 기준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생산버전.. (T-Code : C223)

제품 1 개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작업장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정 표준사이클 타임도 다릅니다. 물론, BOM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터 잉크를 사용할 때 정품을 쓸 수도 있고, 재생품을 쓸 수도 있듯이 BOM도 대체제가 있으면 다른 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버전은 공정과 BOM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과 BOM의 조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각 Case를 하나의 생산버전이라고 합니다.

즉, 제품 1 개는 공정과 BOM의 조합에 따라 공정 * BOM의 수만큼의 생산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공정 * BOM 갯수 만큼 생산버전을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 조건에 맞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1 개의 품번에 3 개의 생산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생산 버전: 일괄 처리

선택 조건

플랜트

자재

MRP 관리자

주요 일자

생산 라인

TL 유형

그룹

세부계획

비율기준계획

개략 계획

생산 버전

품	자재	생	테스트	잔금	메	처	변	테...	점검일	효력시작일	효력종료일
	Q	..		잔					2019. 03. 19	2019. 03. 19	9999. 12. 31
	Q	..		잔					2019. 03. 19	2019. 03. 19	9999. 12. 31
	Q	..		잔					2019. 03. 19	2019. 03. 19	9999. 12. 31
				잔							
				잔							
				잔							
				잔							

[생산 버전]

이 중에서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각 생산버전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L유형(Task List)에 공정 및 공정 그룹 번호를 입력하고,
BOM 용도 및 대체 BOM을 선택해 주면 생산버전을 생성할 수 있다.

[생산버전 조회]

생산버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원가 때문입니다.

생산버전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릅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함에도 생산버전(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버전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CO Object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필요한 CO Object가 **제품원가취합처(PCC, Product Cost Collector)**입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제품원가를 취합하는 내부오더 입니다. 제품원가라 함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얘기합니다.

생산을 하는 1 개의 자재마스터는 생산버전의 갯수만큼 제품원가취합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버전별로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 생산 버전별로 원가가 왜 다를까요?
BOM만 보더라도 대체제가 있을 경우 아무래도 대체제의 구매단가가 저렴하겠죠.
그래서 정상품보다는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 재료비가 더 적게 발생합니다.

그냥 합쳐서 보면 안될까요?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쳐서 봐도 되지만, 불량을 파악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정상품보다는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 불량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걸 증명하려면 2 개의 경우 원가를 따로 집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대체제를 사용했는 불량율이 더 적다면..
저는 100%로 대체제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체제가 더 높다면 어느 수준까지 대체제를 사용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참 많은 걸 설명했는데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걱정입니다.
PP 모듈의 기준정보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CO와 연계되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준정보 기준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설명 드렸고,
실제 생산이 발생했을 때 분개 및 CO 반영 로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수는 일부 언급했네요.) 표준원가 계산이 끝나면 천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제품원가취합처도 언급을 했습니다.

2-2. MM(자재) 모듈 기준정보

지난번에 PP 모듈의 기준정보와 CO와 PP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반복해서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MM 모듈의 기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CO와 연계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MM은 Material Management의 줄임 말이며, 우리말고는 그냥 '자재'입니다. 어떤 회사는 자재팀이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구매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게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SAP MM 모듈의 기준정보 역시 6 하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① 어떤 자재를 구매하느냐?
- ② 누가 구매하느냐?
- ③ 어디서 구매하느냐?
- ④ 얼마에 구매하느냐?
- ⑤ 어떻게 구매하느냐?

왜 구매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간단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처 조회: 주소

공급업체

이름
이름: 6128

검색어
검색어 1/2: 고무스폰지

상세 주소
번지/호수:
우편번호/시:
국가: KR 한국 지역: 14

사서함 주소
회사 우편번호:

통신
언어: 한국어
전화:
이동 전화:
팩스:
E-메일: et
내선번호:
확장:
기타 통신...

주석: VEN1

[공급업체 마스터]

① 어떤 자재를 구매하느냐?

구매할 자재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의한 **자재마스터**입니다. (T-Code : MM03)

SAP 자재유형 중 ROH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매할 자재의 내역, 단위, MRP 방법, 계획 단가 등이 입력된 자재마스터가 있어야 합니다.

② 누가 구매하느냐?

이건 기준정보라기 보다는 조직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조직 (Purchasing Organization)별로 각종 마스터를 생성합니다. 구매조직 하위에 구매그룹이 있습니다. 각자의 회사에 맞게 구매 그룹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 원자재 구매 그룹, 부품 구매 그룹 등 회사 조직에 맞게 정의

③ 어디서 구매하느냐?

SAP의 **공급업체(Vendor)** 마스터입니다 (T-Code : MK03). 해당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업체명,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명 등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④ 얼마에 구매하느냐?

SAP에서는 정보레코드(Info Record)라고 하는데, 그냥 단가마스터입니다(T-Code : ME13). 자재의 단위당 단가가 입력됩니다.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모두들 아시는 새우깡..
그런데, 새우깡의 가격이 동일한가요? 웬 똥단지같은 말이냐고 생각하겠죠?

동네 마트의 새우깡 가격, 대형마트의 새우깡 가격, 편의점의 가격,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격 등 같은 새우깡인데 가격이 다르죠?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파는 곳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 마음)

기업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자재를 파는 곳이 한군데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자재를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고 가격도 품질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정보레코드, 즉 단가마스터는 자재 하나당 1 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1 개당 그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별 단가마스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재단가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공급업체 마스터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 자재의 구매단가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공급업체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구매정보레코드 조회: 초기화면

공급업체

자재

구매 조직

플랜트

정보 레코드

정보 범주

☒ 표준

☐ 외주

☐ 파이프라인

☐ 위탁

[정보레코드 초기화면]

그리고 동일한 업체라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일자별로 단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정보레코드 조회: 구매조직데이터 1

일반 데이터 조건 텍스트

정보 레코드

공급업체

자재

자재 그룹

구매 조직

플랜트 표준

제어

계획 납품 기간 일

구매 그룹

표준 PO 수량 EA

최소 오더 수량 EA

잔여 유효 기간 D

출하 지시

최대 수량 EA

총 미달 납품 %

Tol. Overdl. %

☐ 제한 없음

☒ GR 기준 IV

☐ No ERS

☐ No MText

☐ Ackn. Rqd

확정 제어

세금 코드

절차

Rndg Prof.

단위그룹

조건

단가 KRW / EA

유효 가격 KRW / EA

수량 환산 EA ... EA

가격결정일 관리 GR 일자

인도조건 1

효력 종료일

☐ 현금 할인 없음

조건 그룹

[정보레코드 조회]

자재(구매)팀에서 여러 공급업체와 협상하여 업체와 단가가 확정되면 CO는 그 단가를 표준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자재 계획단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재 계획단가로 입력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 중의 하나입니다.)

⑥ 어떻게 구매하느냐?

이 부분은 정의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라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SAP의 소스리스트(Source List)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서 정보레코드(Info Record) 즉 단가마스터 설명할 때 하나의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공급업체 리스트를 보여 주는 겁니다. 자재와 해당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업체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업체 중 실제 구매하는 업체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공급처 리스트(O) 편집(E) 이동(G) 추가(X) 환경(N) 시스템(Y) 도움말(H)

소스리스트조회: 개요화면

자재:

플랜트:

공급처 리스트 레코드

효력시작일	효력종료일	공급업체	POrg	PPI	OUn	계약	품목	Fix	Blk	MRP	MRP 영역
2008.11.01	2016.07.31	60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08.11.01	2016.07.31	20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6.08.01	9999.12.31	6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재에서 MRP를 수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MM의 기준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설명드리지는 못 합니다(제가 아는 부분이 여기까지라서..).

기준 정보만 보면 CO와 연관성이 적어 보이지만 표준원가를 추정할 때 사용할 계획단가를 확인하거나 실제 월 중에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재료비를 계산할 때 구매단가가 영향을 미칩니다(이동평균가 적용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표준원가 계산하는 로직을 설명한 후 구매, 생산 및 판매 처리 시 CO에 데이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SD(판매) 모듈의 기준정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품목제금지

2-3. SD(판매) 모듈 기준정보

이제 물류 모듈의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SAP 물류 전체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모듈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SAP의 SD(Sales & Distributions) 모듈은 우리말로 '판매'입니다.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 쉽죠?

SAP SD 모듈의 기준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① 무엇을 팔 것인가?
- ② 누구에서 팔 것인가?
- ③ 얼마에 팔 것인가?
- ④ 어떻게 팔 것인가?

왜 팔까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돈을 번다.. 수익이 생긴다.. 회계 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바로 매출액. 매출액 관련 회계전표(분개)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수익이니 당연히 CO의 CO Object에 반영되어야겠죠? 어디에 반영될까요? 수익은 수익성 세그먼트(PSG, Profitability Segment)에 반영됩니다.

또 하나, 수익만 생겼을까요?

제품을 팔았으니 제품이 없어지겠죠?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서 비용을 인식합니다. 어떤 비용??? 바로 매출원가 ==> 이것도 CO Object에 반영되어야겠죠? PSG에..

그러면 수익성세그먼트에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반영되니 CO-PA 영역에서 월 중에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원가는 표준원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원가를 추정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져버렸네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표준원가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SD 기준정보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무엇을 팔 것인가?

생산, 자재와 마찬가지로 판매할 대상. 즉 [자재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니까 생산한 자재마스터와 판매하는 자재마스터가 동일하겠죠?

FERT(완제품) 또는 HALB(반제품)를 판매할 것이고, 생산과 판매에서 동일한 자재마스터를 사용합니다(물론, 구매한 것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생산 관련 정보는 MRP1,2,3,4 Tab 에서 관리하고, 판매 관련 정보는 영업 Tab에서 관리합니다.

자재마스터(Material Master)는 여러 Tab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 필요한 Tab을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판매할 대상 즉 자재마스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② 누구에게 팔 것인가?

SAP의 [고객\(Customer\)](#) 마스터 입니다. MM 모듈의 공급업체(Vendor)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마스터는 영업조직(Sales Organization),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s), 제품군(Divisions)별로 생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 영업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인천점, 대전점, 대구점, 부산점 등) 각 조직별로 고객을 생성해야 하며, 내수나 수출이나 등 유통경로를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분류(의류, 가전 등)에 따라 고객을 따로 등록해야 한다.

영업조직과 유통경로에 따라서는 왜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제품군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건데, 유통경로와 마찬가지로 제품군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고객조회: 일반 데이터

기타 고객 회사 코드 데이터 ETM 데이터

고객

주소 제어 데이터 지급 거래 마케팅

미리보기

이름
직함 회사
이름

검색어
검색어 1/2

상세 주소
번지/호수
우편번호/시 61 광역시
국가 KR 한국 지역
시간대 UTC+9

통신
언어 한국어
전화 내선번호
이동 전화
팩스 확장
E-메일 .im
통신 방법
데이터 라인
텔레박스

기타 통신...

[고객 마스터 조회]

고객 마스터에는 고객명,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이 입력되며,
매출 회수 조건 및 F에서 매출채권으로 인식할 계정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객조회: 회사 코드 데이터

기타 고객 일반 데이터 ETM 데이터

고객
회사 코드

계정 관리 지급 거래 통지서

지급 데이터
지급 조건 W007

자동지급거래
지급 방법 CVW
대체지급인

지급 조건 (1) 207 엔트리 있음

제한사항

이T	설명
01	즉시 지급가능 만기순액
00	선수금 및 즉시수금
01	즉시 지급가능 만기순액
30	30일후 현금지급
40	40일후 현금수금
45	45일후 현금수금
47	47일후 현금수금
52	52일후 현금지급
55	55일후 현금수금
60	60일후 현금수금
70	70일후 현금수금
75	75일후 현금수금
80	80일후 현금수금
90	90일후 현금수금

③ 얼마에 팔 것인가?

[조건유형 - 초기 화면]

SAP의 조건유형(Condition type) 마스터입니다. 판매단가 마스터.

MM 모듈도 그렇지만 단어가 한번에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정보레코드, 조건유형 등 그냥 구매단가, 판매단가 마스터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판매단가도 영업조직, 고객, 유통경로별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개를 사는 고객과 1 만개를 사는 고객에게 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옆집에 살고 있는 고객과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도 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제품이라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유형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닙니다.

판매단가를 여러가지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1,000 원을 받고 팔지만 그 1,000 원에는 개발비, 관세, 운임, 제품가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를 하나하나 구분한 것이 조건유형입니다.

어쨌든 SAP의 조건유형별로 단가를 입력할 수 있으면, 이는 영업조직, 고객, 유통경로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재	단위	UoM	스	효력시작일	효력종료일
L	8,600 KRW	1 EA	C	2005.12.09	9999.12.31

[조건유형 - 단가입력]

④ 어떻게 팔 것인가?

사실 이것은 SAP SD의 기준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통경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유통경로는 내수, 수출 등 판매 방법을 구분하는 key입니다.

각 유통경로별로 고객 및 판매단가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자재마스터의 영업 뷰도 유통경로별로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4 가지를 설명 드렸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3 가지입니다.

자재마스터, 고객, 판매단가.

위 3 가지는 모두 유통경로를 구분해서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SD의 기준정보 자체가 CO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 자재마스터는 예외입니다.

자재마스터는 모든 모듈과 연관이 있습니다.

표준원가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표준원가가 없으면 매출원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SD에서 판매처리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CO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월중 제품의 판매가 발생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CO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MM, PP, SD의 기준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품목제금지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고딕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의 승인 없는 모든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복제 금지